

## 순창조씨의 뿌리

### ① 씨족사 개요

순창조씨의 뿌리는 씨족사 정립을 위해 책자발간에 앞서 미진한점을 보완하고자 편집증인 재료를 우선 여기에 계재하니 많은 고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순창조씨의 시조 趙子長은 고려초 淳昌에서 戸長을 지내고 대를 이어 계승하여 오다가 고려 명종 7년 (1177) 5世 仁平에 이르러 계룡산의 적인 亡伊와 亡所伊 등을 토평한 공으로 일등공신에 오르고 檢校尉大將軍을 역임하면서 명문거족으로 등장하였으며 6世 光明은 金紫光祿大夫 門下侍郎平章事를, 7世 文璇은 中顯大夫 左右衛大護軍을 지냈다. 8世 廉(시호는 文貞公) (1293-1346)은 고려조와 원나라에서 각각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원나라에서는 瀋陽等路軍民總管知府事를 지내고 고려조에서는 匏政大夫 政堂文學 密直司使, 藝文館大提學 知春秋館事 上護軍까지 올라 양국간에서 다같이 文名을 드높혔으며 슬하에서 忠과 孝의 귀감인 형제분을 배출하여 전통적인 忠孝家門의 기틀을 이루하였으니 그 한 분이 禮儀判書와 版圖判書를 지내고 誠勤明亮佐理功臣重大匡 淳城君에 봉한 9世 縱(시호는 良度公)으로서 일찌기 아버지를 따라 원나라에 들어 갔을때 아버지의 병환이 위급하자 손가락을 불살라 약에 타서 바쳐 회생시킨 燒指公으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효자요, 또 한 분은 壬申年 (1392) 고려가 망하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폐산, 송평으로 낙향하여 避世亭을 세우고 그곳에서 두문 종신한 충신, 國子進士 紳(호는 避世公) 이시다.

그 후 순창조씨의 문중을 빛낸 대표적인 인물로는 良度公의 후손 10世 欽(호는 西山公)은 고려가 망하자 임천군사의 벼슬을 버리고 평산농막으로 돌아와 서산처사라 자호하고 은둔하여 태조께서 여러 번 불러도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공조전서, 광주목사 등의 교지를 모두 거절하며 불사이군의 충절을 굳게 지키고, 11世 琅(호는 해주목사를), 12世 怡(호는 풍천부사를), 16세 邦穎은 의주부윤을, 18세 壽益(시호는 文簡公 호는 晚閑堂(1596-1674))은 부제학, 대사성, 대사간, 이조참판, 경상, 경기, 강원 삼도감사를 지내고 이조판서, 홍문관 및 예문관 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효종대왕의 사부를 지낸 壽恒(호는 一閑齊公), 天命圖解 등 많은 저서를 펴내어 학자로서 명신록에 등재된 21세 胤一(호는 丹邱子公(1706-1776)과, 避世公의 후손 12세 惺은 동래부사를 지낸 분으로서 이시애란(1467) 때 선봉장으로 나가 싸워 이를 평정하여 원종공신에 오르고, 14세 世球(호는 松齊公)는 당세에 문필이 뛰어난 분으로서 기묘사화(1519)로 절친한 벗인 정암 趙光祖가 화를 입자 명리에 뜻이 없어 폐산, 송평으로 낙향하여 폐세정 유혀에 정자를 세우고 두문불출, 군자감봉사 제수를 사양한 폐세군사이며, 15세 服은 함안군수와 해주판관을 역임하고 병조참판에 증직된 분으로서 임진왜란(1592) 때 동생 胤(공조참판 증직)과 더불어 의병 친여명을 규합, 충주 남쪽 우목들에 나가 용전 분투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전몰하니 胤은

형의 시신을 수습, 장사지내고 곧 뒤따라 분사하여 형제분이 다같이 선무공신에 오르고, 16世 德恭은 양지현감을 지내고 형조 참의에 증직된 분으로서 임진왜란 때 조야에서 의병을 일으켜 여러 번 싸워 혁혁한 무공을 세우는 한편 숙부 服이 전몰하자 즉각 정병을 이끌고 나가 싸워 적진에서 숙부의 시체를 안고 돌아와 선무공신에 올랐으며, 16世 德容은 이율곡의 문인으로 김천도찰방을 지낸 분으로서 이인거의 역모(1627)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우고 17世 坤(오위장) 와 더불어 호남에서 일어난 죄여현란(1628)을 평정하여 두 분 다같이 영사공신에 올라 한 문중에서 9대에 걸쳐 일곱충신이 탄생하였다.

이와같이 순창조씨는 5世 仁平께서 대장군에 오르면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8世 廉(文貞公)이 원나라에 들어가 제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올라 문명을 크게 펼치고 고려조에서 예문관 대제학까지 지내면서 혼족으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통적으로 忠과 孝의 빛나는 문종이다.

- 참고 1. 戸長 : 신라시대에 공족과 대신들이 여러 지방으로 갈라져 살아 이들을 안일하게 지내도록 戸長을 삼아 그 임무는 대를 이어 물려받았으며 고려 태조도 이러한 예에 따라 벼슬을 주었다.
2. 亡伊와 亡所伊 : 순창조씨 세보에는 亡金과 亡鶴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역사적으로 亡伊와 亡所伊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고려 명종 7년(1177) 仁平께서 19세때 鄭世猷과 함께 망이와 망소이를 청주에서 사로잡아 이를 토평하였다.

(편찬한 사람 대종회장 조덕선)

## 대표대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에 크게 기대합니다

모범대표대의원  
평택파 趙仁基 종친

평택파 趙仁基대표대의원은 회생과 봉사정신으로 종사(宗事)를 모든 일에 우선하여 21명에 달하는 주소불명자를 가장 먼저 최단시일내에 일소하는데 앞장섰으며 또한 수시로 서신이나 전화를 통하여 종사에 관한 건설적인 조언과 협력을 하고 회비납부를 독려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모범 대표대의원으로서 깊히 사의를 표합니다.

대표대의원은 명실상부하게 그 파를 대표하며 각파는 대표대의원을 중심으로 뜰뜰 뭉쳐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종회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여야 할 대표대의원이 종사를 외면하거나 소극적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사에 전념하기 어려울때는 자체없이 후임자를 선정해서 잠시라도 종사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없는 나무없고 조상없는 자손없다”

# 회비내는 작은정성 대종회의 초석된다

우 체 국	011775-0046769-11	순창조씨대종회
농 협	067-01-221618	조씨종친회
국 민 은 행	025-01-0315-181	순창조씨대종회

※ 입금자 이름과 과를 필히 명시바람.

우리 대종회는 불행하게도 종재가 없습니다. 종재없는 대종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같이 어려운 입장에서 만일 1년에 5천원의 대종회 회비마저 외면하는 종친이 계신다면 정말 섭섭한 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비납부에 동참합시다.

## 회비를 납부한 종친명단

(93. 7. 31 현재)

평 택(27)	용 국	여 주(4)	덕 선	창 식	송 현(0)	태	룡	문 등(3)
용 학	병 호	궁 상	인 선	명 식	원 충(4)	태	관	태 원
용 목	재 연	준 상	이 안(1)	광 식	태 순	가 주(2)	태	섭
용 규	서 산(0)	길 상	만 주	태 진	정 식	우 식	태	인
용 두	양 지(0)	범 준	성 종(1)	태 호	준 식	영 규	파불명자(4)	
용 섭	해 미(2)	단 양(1)	명 주	락 촌(4)	태 월	탑	동(14)	증용(체) (천안)
용 근	영 섭	영 수	품 곡(7)	재 권	소 암(0)	현	식	성용(봉) (명주)
횡 기	동 회	예 천(3)	문 식	원 식	행 정(19)	민	식	영식(봉) (대전)
철 기	지 평(2)	자 영	영 달	창 식	영 주	장	식	행식(봉) (보은)
천 용	은 상	문 용	무 주	윤 식	용 주	만	식	
민 기	규 상	만 규	병 기	이 곡(0)	준 식	윤	식	계 : 147명 2, 940, 000원
병 덕	청 주(12)	안 촌(2)	병 규	진 천(0)	창 식	태	항	천조하신증친
정 기	태 년	명 재	관 선	장 촌(3)	덕 주	태	왕	원충파
병 우	성 식	근 재	천 식	종 성	영 식	태	웅	조정식
성 기	정 주	상 주(0)	청 안(3)	대 길	태 국	종	선	30, 000
인 기	태 근	지 곡(4)	영 숙	종 학	준 선	태	완	합 계
용 근	태 화	갑 주	현 식	삼 고(3)	태 범	태	남	2, 970, 000
용 민	태 환	칠 주	웅 선	관 식	태 운	근	식	제 : 1, 220, 000
병 목	태 원	경 식	쌍 곡(0)	명 식	덕 선	광	열	농 : 770, 000
병 국	태 형	철 식	문 막(1)	홍 식	태 정	승	렬	은 : 980, 000
정 기	명 선	문 경(2)	화 주	갑 산(4)	태 륙	마	전(4)	
찬 기	태 호	홍 식	팔 송(8)	태 영	윤 주	천	식	
찬 주	성 평 미상(6. 28농협)	승 주	김 제	범 식	태 윤	은	식	
윤 주	성 평 미상(6. 30농협)	기 성(3)	학 주	태 용	문 식	영	식	
선 주		보 선	춘 식	영 식	소현	식	명	

# 정확한 주소록은 대종회의 뿌리가 되고 재산이 됩니다.

전종친들의 정확한 주소록 유지는 대종회운영에 기본이 됩니다. 종친간의 유대도, 종친들의 참여의식 고취도, 또한 전통적으로 빛나는 충효문중의 자궁심을 가슴깊이 심어주는 역할도 모두 종친들의 주소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종회보 1호(93. 4. 15)를 비롯해서 3회에 걸친(93. 4. 15, 93. 5. 3, 93. 7. 7) 대표대의원에게 보낸 서신 등으로 당부도 하고, 호소한 바 있으나 그 실적은 기대에 밀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소록이 정비된 곳은 평택, 지평, 여주, 단양, 예천, 상주, 품곡, 청안, 쌍곡, 탁촌, 이곡, 진천, 장촌, 한계, 행정 등 15개파이며 아래에 명시한 20개파는 주소록이 정비되지 않았으니 빠른 시일 내에 대표대의원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록을 통보하여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파	총인원	주 소 불명자	대표대의원	파	총인원	주 소 불명자	대표대의원
서 산	32	17	趙 世 基	문 등	27	14	趙 泰 元
양 지	16	4	趙 鐘 聲	동 막	12	3	趙 哲 柱
해 미	16	4	趙 相 基	팔 송	85	34	趙 範 植
청 주	75	25	趙 泰 永	삼 고	97	41	趙 泰 勝
안 춘	35	18	趙 冕 奎	갑 산	43	14	趙 凤 柱
지 곡	42	11	趙 用 柱	송 현	42	11	趙 長 混
문 경	26	9	趙 永 冕	원 충	93	16	趙 泰 天
기 성	31	15	趙 智 善	가 주	29	8	趙 敬 柱
이 안	21	4	趙 昌 植	탑 동	118	27	趙 宅 柱
성 종	70	37	趙 容 柱	마 전	28	10	趙 洪 混

계 322명

## 종친의 동정

### 인 재(현역)

※ 원고 제출 환영합니다.

### 사 업

평택과 趙敏基 의 학 박 사(한림대교수)

송현과 趙宗混 법 학 박 사(상지대교수)

평택과 趙炳昌 신 학 박 사(신학대학원 원장)

평택과 趙榮圭 신 학 박 사(성산교회 목사)

탑동과 趙泰男 문 학 박 사(경남대 교수)

탑동과 朴誠愛 이 학 박 사(서울대교수  
서울대교수 종친의 부인)

삼고파 우미라 사회학박사(조선주 종친의 부인)

진천파 趙泰千 검 칠 관(육본 법무감찰 대위)

청주파 趙致混 이 학 박 사(미국메릴랜드대교수)

변호사 趙鋗樂(평택)	(593 - 5353) (593 - 8383)
세무사 趙俊湜(원충)	(983 - 5398) (983 - 5399)
한의원 趙鋗日(평택)	(세광한의원) (764 - 2025)
" 趙倉柱(행정)	(자양한의원) (456 - 7556)
" 趙鋗武(평택)	(대원한의원) (422 - 6646)
" 趙俊相(여주)	(여주 조생당한약방) (85 - 2398)
귀금속 趙泰年(청주)	(서울 정글사) (434 - 2886)
" 趙鍾國(양지)	(서울 경신당) (266 - 1035)
" 趙炳珍(탑동)	(충주 금옥당) (847 - 3440)